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올려놓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어떤 물건을 무엇의 위에 옮겨 놓다.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3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올려놓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어떤 물건을 무엇의 위에 옮겨 놓다.

올려놓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올려놓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올려놓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올려놋ㅎ- 문헌 수록 표기	—	—	—	—	—	●→
올려노- 문헌 수록 표기	—	—	—	—	—	●→
올려놓-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올려놓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올려놋ㅎ-, 올려놓-, 올려노-

올려놓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올려놓다’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올려놓-’은 ‘오르-’의 사동사 ‘올리-’와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올려’에 동사 ‘놓-’이 결합한 것이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올려놋ㅎ-’은 ‘올려놓-’의 중철표기이고, ‘올려노-’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한 발음이 표기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함에 따라 ‘올려놓다’로 표기하게 되었다.

문헌 속의 올려놓다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올려놋ㅎ-, 올려노-, 올려놓-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올려놋ㅎ-, 올려노-, 올려놓-

출처 1907 귀의성 상:87

용례 01

문헌 용례

팔굼치눈, 쏘구리고 안진, 무릅, 우에, 올려놋코, 손슈건 든 손이 밤벌레갓치, 살씬 볼때기를, 벗틔고.

현대어 풀이

팔꿈치는 쪼그리고 앉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수건 든 손이 밤벌레같이 살찐 볼때기를 버티고.

출처 1927 조선일보 7월 5일 3면

용례 02

문헌 용례

병뎡은 소리를 질르면서 그 개를 쏘 압치마 우에다 올려노앗습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동아일보 12월14일 4면

용례 03

문헌 용례

그대로 좌석 우에 올려노커나 그러치 안흐면.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올려놓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올려놓다의 뜻과 역사